

화요일은 포크데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월21일까지
박창근·박강수·김두수·최고은 등 출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은 오는 10월21일까지 매주 화요일 '화요일(火曜日) 포크데이'를 개최한다. 첫 공연인 포크 명인 콘서트 '국소남과 별밤이야기'는 지난 16일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1층 영상관에서 진행됐다. '국소남과 별밤이야기'는 고(故) 이상순과 함께 광주 포크의 씨앗을 뿌렸던 국소남의 진행으로 정용주, 정오차 하성관 등 광주출신 가수 13명이 출연했다.

화요일(火曜日) 포크데이는 말라르메의 화요일(火曜日)을 모티브로 한다. 출연 가수가 자신만의 '화'자를 선택한 후 그 한자를 선택한 이유를 토크와 음악으로 풀어가는 공연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두 번째 공연은 '포크 코어 코드'를 주제로 박창근의 '그림화(畵)'와 박강수 '꽃화(花)', 30일에는 포크배틀을 주제로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화'를 주제로 열린다. 10월7일 열리는 네 번째 공연은 김두수의 '벼화(禾)'와 최고은의 '화화화(和)'로 꾸며지고, 10월14일에는 이정선 밴드의 '필화(花)', 10월21일에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로 공연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610-243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예술가는 마지막까지 무대 꿈꿔야 해요”

67세 현역 김복희 한국무용협 이사장 광주서 '신부' 공연

“테크닉 보다는 내면의 깊이 보여줄 나이 됐죠

현대무용 한국적 해석 관심...언제든 무대 설 것

무용계 수상 등 열정적 무용인 많은 광주 인상적”

뛰어난 테크닉도, 화려한 동작도 없었다. 하지만 작은 몸짓 하나, 동작 하나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무용가의 자리는 '무대'임을 온 몸으로 보여준 노(老)무용가의 모습은 감동이였다. 예술가는 역시 현역으로 무대에 오를 때, 가장 아름답다. 광주의 경우 국악을 제외하면 나이 들어 현역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드물어 아쉬웠던 터라 더 인상적이었다.

현대무용가 김복희(67)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이 20일 광산문화관에서 열린 그린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의 '트리니티 차세대 작가 전 III'에 초청됐다. 일반 관객 뿐 아니라, 공연을 지켜본 동료 무용수와 타 장르 예술인들 모두 언론에서 나오는 그의 무대에 박수를 보냈다. 어떤 예술인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직접 안무한 2인무 '살꽃, 바람꽃-신부'를 공연했다. 6년전 만든 이번 작품은 서정주 시인의 시집 '질마재 신화'에 실린 시 '신부'가 모티브다. 그녀는 한 남자에게 시집 온 여자의 한 많은 일생을 몸짓으로 보여줬다. 특히 마지막 장면, 종이 한복을 찢고 가면서 얼굴을 가린 채 우는 지, 웃는

지 알 수 없던 몸짓이 흥난파의 '그리움'과 어우러져 감동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39년간 몸담았던 한양대 무용과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했다. 며칠 전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김스를 미룬 채 이번 무대에 올랐다. 열정이 대단했다.

“나이 드니까 움직임이 줄어들고 테크닉도 안되고 그래요.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웃음) 유명한 화가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언가를 꼭 채우기 보다는 여백의 미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테크닉을 못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동작은 단 순화되지만 내면의 깊이를 보여줄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언제나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해요. 실제로는 서지 못하더라도요.”

5살 때 무용을 처음 시작한 김이사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71년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첫 공연을 하며 프로 무용수가 됐다.

“무용가의 삶이 고단하기는 하죠. 잠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쉴 수 없는 삶이거든요. 몸도 정신도 언제나 힘들죠. 너무 힘들어 아이들에게는 무용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 나이가 되고 보

니 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려 했던 삶도 참 행복했던 것 같네요.”

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을 전했다.

“제가 현대 미술을 비유로 많이 들어요.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도통 모르죠. 한데 한참을, 오랫동안, 자주 보고 있으면 뭔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고, 무엇보다 자주 접하는 게 중요해요. 애써 스토리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무용은 소설보다는 시에 가깝죠. 아무리 스토리 라인이 있어도 상징이 많아요. 그 상징을 나름대로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김 이사장은 현대 무용의 한국적 해석에 관심이 많다. 또 책, 그림 등에서 영감을 얻는다. 대표작 '눈길'은 이청준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읽고 감흥을 표현했다. 빅토르 위고의 '노르드담 드 파리'를 모티브로 한 '천형(天刑)', 그 생명의 수레', 스페인 작가 로르카의 동명원작에서 영감을 얻은 '피의 결혼' 등이 대표작이다.

“광주는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차례 수상하는 등 무용 실력이 뛰어난 곳이에요. 무엇보다 요즘같은 상황에서 무용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광주에는 열정적인 무용가들이 많아요. 그 저력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이사장은 광주 무용에 대한 덕담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으면 작품을 만들고 언제나 무대에 서고 싶다고 했다. 무대와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복희 이사장이 안무를 짜고 출연한 '신부'.

최석운의 재미있는 현대미술

시립미술관 인문학 강좌 24일 상륙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상륙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최석운(사진) 작가를 초대해 상륙인문학강좌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 여섯 번째 강좌를 진행한다.

경기도 양평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최씨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들의 일상, 재미있는 현대미술'을 주제로 민중미술에 관한 내용부터 현대미술과 모더니즘을 작가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한편 최씨의 재미와 풍자가 담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전이 25일부터 해외문화예술공간에서 열린다. 문의 062-613-715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양림동 우월순 선교사 사택서 재즈와 詩 만나요

‘공연 순수’ 26일 콘서트

아직도 '김현승의 커피향기'를 찾아 술한 문인들이 스머플 것 같은 광주 양림동에서 재즈 오케스트라와 시낭송이 함께하는 낭만적인 콘서트가 열린다.

양림동의 역사문화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순수'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우월순 선교사 사택 등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즌2' 네 번째 공연 '가을아, 오면 가지 말아라'를 선보인다.

이곳에서 박수용 교수가 이끄는 빅밴드 '박수용 재즈 오케스트라'의 깊고 풍부한 재즈 선율과 시낭송이 함께 어우



박수용 재즈 오케스트라.

러진다.

'박수용 재즈오케스트라'는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26인조 빅밴드드 피아노, 베이스, 드럼은 물론 색소폰, 트럼본, 트럼펫 등 관악부까지 아우르는 탄탄한 진용과 정수급 실력을 갖춘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척 맨지오니의 'Feel so good', 조셉 코스마의 '고엽',

프랭크 시나트라와 '마이 웨이' 등 팝과 재즈 명곡들로 가을밤을 물들인다.

또 이번 공연은 '시인의 마을'로 불렸던 양림동의 특성을 살린 시낭송이 함께한다.

26인조 빅밴드의 배경 음악과 함께 김현승의 시를 비롯해 수편의 아름다운 가을 시들을 선보인다. 문의 062-651-0972.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어동미술제 작품 공모

광산문화원, 11월 10~14일

광산문화원(원장 이현선)과 어동미술제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영섭)는 제24회 어동미술제를 개최한다.

작품 공모는 11월 10~14일로, 국적에 관계 없이 만 10세 이상 신인 및 기성 미술인들은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공모는 포트폴리오와 서예·문인화로 구분된다.

포트폴리오 공모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서예·문인화 공모 대상 수상자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상금 300만원 등이 수여된다.

출품원서는 이달 마지막주부터 광산구청과 광산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11월18일 발표된다. 문의 062-941-337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제12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입상자

- 대 상: 이운행
- 최우수상: 김영중
- 우수상: 전근배, 박득채, 정해국, 장학영, 엄안순, 신춘식, 강길주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지회장 정여춘)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순천시가 후원한 제12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는 1,013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대상 1명, 최우수상(이사장상)1명, 우수상 7명, 특선 112명, 입선 301명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예사로 도연명 선생의 시를 쓴 순천시 용당동 이운행씨(남)가 차지하였고, 최우수상 김영중씨(순천), 우수상 전근배씨(무안), 박득채씨(영암), 정해국씨(광양), 장학영씨(순천), 엄안순씨(보성), 신춘식씨(여수), 강길주씨(고흥)가 각각 차지하였다. 입상자 시상식은 2014년 11월 1일(토) 오후2시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갖게 되며 전시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순천문화예술회관과 순천시문화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된다. 운영위원, 심사위원,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 회 장: 정여춘
- 운영위원장: 이해근
- 운영위원: 송선석, 김상희, 심수일, 김용한, 장신모
- 심사위원장: 정재백
- 심사위원: 김하엽, 송완환, 이종연, 지왕식, 김 숙

■특 선

- [한 글] 최현순, 김석진
- [전 서] 신용재
- [예 서] 김영숙, 주양오, 김영자, 권문오, 장경철, 남문석, 지혜진, 김형배, 정기택, 양경형, 박옥란, 김영주, 정순례, 정원근, 김달수, 정종두, 백병호, 안장호, 최용주, 이명희, 장정학, 문경순, 송삼엽
- [해 서] 이운재, 김문삼, 박종삼, 김희석, 남택이, 김순임, 한명규, 서정선, 송병진, 양병호, 임병문, 김나연, 이수갑, 김덕철, 이운수, 조홍락, 박숙자, 심은경, 송선섭, 김경연, 임삼순, 김재숙, 박양현, 송은숙, 송성모, 정연경
- [행초서] 이근태, 김복규, 김형우, 한경조, 유송학, 서용식, 류근재, 현희원, 서영태, 김석재, 조영근, 김채석, 김광태, 이방우, 신종우, 이병문, 최문수, 송재권, 장성숙, 서사원, 이상현, 한상규, 조상복, 배학기, 정현순, 송재우, 강상우, 이용지, 김재근, 이정식, 이강운, 도지영

- 박인규, 김용철, 정인남, 정희준, 김영수, 나중석, 김재표, 황승연, 김중선, 오만심, 김준영, 장재영, 서종업, 이규태, 안남순, 유재을, 안병현, 김정현, 백준선, 정명섭, 홍현진, 성윤옥, 박 현, 전관홍
- [문인화] 박옥희, 박운진, 이용자, 이미경, 김순호

■입 선

- [한 글] 안이덕, 김경남, 김효규, 정덕민, 최낙희, 김영희, 심길구, 이정주, 이윤운
- [전 서] 박금중, 박찬원, 김승근, 전영자, 김연자, 안주환, 신경석, 김용재, 윤정란, 이혜영, 김은애, 박미연, 황광숙, 허경희, 곽미숙, 이기호
- [예 서] 홍명희, 현연성, 김인섭, 조병연, 박창자, 김일주, 정종배, 박진희, 박재식, 김치성, 문상일, 명광호, 최일식, 한병규, 김영순, 류숙희, 지왕식, 백종재, 이영환, 배현숙, 김대봉, 지양일, 서성산, 김중우, 윤순근, 정은영, 임미애, 김이순, 이광표, 김외자, 김근자, 장영자, 서지혜, 이재준, 이인석, 임복동, 조신옥, 조재철, 조일순, 임봉하, 이오수
- [해 서] 윤정부, 배석덕, 유종복, 안재남, 김순녀, 신병호, 박경호, 박성재, 박종일, 정덕순, 위종삼, 이봉의, 성락부, 김복덕, 문재현, 김보민, 황현택, 전선이, 오우철, 홍문기, 유순선, 김월순, 주현남, 박옥병, 김창근, 박석규, 박현자, 김화자, 김 진, 조동일, 김동연, 윤효봉, 최낙희, 조성익, 신기식, 김연호, 이종미, 서경식, 김용일, 서형연, 신경환, 장봉석, 박인수, 정영희, 임석락, 허동호, 이종문, 최명심, 김맹호, 김용태, 김명주, 진용욱, 추경수, 오병무, 박대식, 김욱기, 김진국, 김정식, 박영숙, 정문환, 김동애, 황성룡, 임준택, 김종일, 김정수, 이민재, 장재후, 최낙희, 유선태, 김복수, 김남규, 이종익, 송동욱, 정순희, 송정민, 권남화, 나이선, 신옥삼, 김병선, 김동열, 송형관, 송일환, 송영민, 김부기, 김경오, 윤상용, 신춘호, 송영기
- [행초서] 임순애, 김영운, 김성중, 김형도, 박종민, 전생자, 최미숙, 김희중, 홍순강, 박정수, 박석근, 노승덕, 유영숙, 정인규, 김옥득, 최재원, 최남호, 민중호, 김정희, 최정열, 이국철, 윤소현, 봉만중, 김영양, 황청목, 이종길, 서창환, 김창운, 신동열, 박병호, 곽대승, 이진섭, 임덕자, 이현모, 이점순, 이기찬, 류종열, 김원연, 류연희, 이경렬, 박효숙, 정은숙, 지환기, 소중석, 추무영, 김학렬, 서정렬, 이경호, 정윤근, 류재희, 최금석, 김금영, 장영자, 김화선, 이홍성, 조양숙, 홍은옥, 정상운, 박종호, 유영근, 임명숙, 이주희, 양정남, 김 호, 정정남, 정정숙, 한연주, 박종삼, 임복동, 박공재, 오부록, 박욱근, 최성문, 설광순, 이유자, 박영주, 정임순, 이금재, 김종열, 박병호, 정영환, 조영중, 김국량, 양갑용, 천성재, 서래원, 박종규, 김대식, 정병덕, 정주건, 김동규, 지승도, 이도영, 황재현, 박형모, 김중표, 안종덕, 안규신, 이대순, 정해춘, 문평호, 박정일, 박승열, 백용재, 김현식, 허수영, 김응배, 신봉석, 강신규, 부기원, 서경중, 조재수, 백복남, 노대규, 최용주, 구종현, 한정석, 박종호, 한상철, 정성택, 박종환, 정민순, 송찬중, 송근심, 김주화, 김용빈, 박종수, 남두만, 송래현, 송관용, 오우탁, 김인주, 신용식, 김병남, 마봉선, 임정남, 정정희, 손원배, 김평석, 정경식
- [문인화] 박영희, 김철배, 신정순, 박수인, 임병문